

김태경: 발표 순서를 변경해서, 먼저 동의대학교 정효운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효운: 저는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와 정효운이라고 합니다. 제 본래 전공은 고대 한일관계사입니다.

전공이 다른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동기는 2009년 인문사회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연구소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죽음과 문화에 관련된 연구를 이어받아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의 연구 과제가 호모 후마니타스의 사생학, 즉 한국적 사생학의 정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각론적 성격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만, 저는 총론적으로 지금 한국의 사생학의 현황과 앞으로의 시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知的 융합담론으로서의 '사생학' 연구

정 효운

1. 들어가기

근래 웰빙 (well-being) 이라든지 '웰다잉 (well-dying)' 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왜 갑자기 한국사회가 죽음과 삶이라는 단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 이것은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과 동시에 자살이라는 병리적 '죽음현상' 과 안락사나 존엄사 등과 같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죽음담론' 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편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질병의 치료와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죽음을 예측하고 예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의 '김 할머니 사건'¹ 과 관련된 존엄사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음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입장이 사회적 共鳴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 과학과 의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²

죽음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방식을 '과잉해석' 이라고 하며 외면하려 했던 과학이 '해석결핍' 의 의혹에 대해 스스로 해명해야 할 차례가 된 것이다. '아름다운 이별' 과 같은 이른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요구를 자연과학이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활동, 사별유족들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자살예방을 위한 멘탈케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인간적, 인문학적 배려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호모 후마니타스 (Homo Humanitas) 의 사생학' 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적 사생학의 토대 구축을 위한 전제로서 본 연구팀³이 추진하여 온 ‘호모 후마니타스’⁴ 사생학’ 구축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국내의 사생학 연구동향

사생학 (Death and Life Studies) 은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음미하고 이를 통해서 삶을 반성하고 생명의 문화 및 가치를 온전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종합 학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반성하기 때문에 ‘사생학’ 이다. 죽음에 관한 연구는 서양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일본과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 중요한 분야로 연구, 교육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의 죽음학 연구는 1959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페이펠(Herman Feifel)의 《The Meaning of Death》가 발표되면서 공론화되었고, 뒤 이어 문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죽음을 조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예를 들어 영국의 간호사, 내과의였던 시실리 손더즈(Dame Cicely Mary Strode Saunders)는 《Care of the Dying》(1960)이란 저서를 통해 현대 의학에서의 완화 케어를 강조함으로써 호스피스 운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같은 시기에 영국의 신학자이며 소설가인 루이스(C. S. Lewis)는 《A Grief Observed》(1960)라는 작품을 집필하여 사별의 슬픔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영국의 인류학자였던 조프리 고러(Geoffrey Gorer)는 《The Pornography of Death》(1963)란 저서에서 죽음 문제를 현대사회의 문제로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 사회학의 영역에서는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탈콧트 파슨스(Talcott Parsons)가 「Death in American Society」(1963)라는 글을 통해 기술이나 의학의 진보가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 분석하였고, 철학 영역에서는 프랑스 철학자인 자끄 쇼롱(Jacques Choron)이 《Death and Western Thought》(1963)와 《Death and Modern Man》(1964)이라는 책을 통해 죽음의 공포와 불멸의 관념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외에 스위스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zabeth Kubler-Ross)는 《On Death

and Dying》(1969)에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케어의 방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는데, 이것은 '죽음학' 관련 책으로서는 최초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일반 대중들이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가되고 있다. 이후 죽음학은 에드가 모랭(Edgar Morin)의 《인간과 죽음》(1970), 필리프 아리에스(Philippe Aries)의 《죽음의 역사》(1975)와 《죽음 앞의 인간》(1985), 케네스 J. 도카·존 D. 모건(Kenneth J. Doka and John D. Morgan)의 《죽음학의 이해(죽음과 영성)》(1993), 베르트 케이제르(Bert Keizer)의 《죽음과 함께 춤을》(1994), 울리 분덜리히(Uli Wunderlich)의 《메멘토 모리의 세계》(2001)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에서의 사생학 연구는 의학, 문학, 사회학, 철학, 정신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죽음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간호, 사별에 직면한 근친자의 슬픔에 대한 관심과 배려, 호스피스 운동 등의 실천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동양에서의 죽음에 관한 연구는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서양의 죽음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시작되었다. 예수회 신부이며 철학자인 독일의 알폰스 데켄(Alfons Deeken)이 1970년대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쇼치(上智)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1980년대부터 사생관과 죽음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제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82년 데켄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세미나'를 개최하여 근친자와 사별한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을 창립(<http://www.seitosi.org/index.html>)하였다. 이 모임은 1994년부터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 전국협의회'(<http://www2u.biglobe.ne.jp/~shinai/seitoshi.htm>)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에서 죽음학이 일반인에게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미나 개최의 결과물이 데켄에 의해 편집되어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전 3권, 1986년)과 《삶과 죽음의 교육》(2001년)이 각각 출간됨으로써 죽음학이 일본에서 새로운 학문으로서 자리 잡아 갈 수 있

게 되었던 것이다.

테켄에 의해 제창된 죽음학은 서구의 문화와 기독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요소가 강하고, 죽음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인의 사생관과 역사, 문화적 전통에 바탕을 둔 죽음학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에 東京대학교에서는 2002년부터 일본 정부(문부과학성)의 지원 하에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에 ‘글로벌 COE 연구실’(<http://www.1.u-tokyo.ac.jp/shiseigaku/index.html>)이란 명칭의 ‘사생학연구소’를 만들어 사생학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생학의 전개와 조직화”의 과제와 목표’를 테마로 하여 의료와 인문. 사회의 융합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관련 학자의 초청강연회, 세미나를 통해 《사생학연구》(2010년 3월까지 13권 출간)라는 연구학술지와 《사생학》(5권, 2008)외 21권의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동경대학교 사생학연구진은 일본의 죽음학(Thanatology)을 서양의 죽음교육(death studies, death education)과 차별화하여 사생학(death and life studies)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양의 죽음학이 주로 영성을 바탕으로 한 죽음준비교육과 인간 심리의 정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죽음학은 서양 죽음학의 기본적인 요소를 수용하면서 생명윤리의 문제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연구 대상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 東洋英和女學院대학에서도 2003년에 사생학연구소가 개설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물로 《사생학연보》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고, 明治大學의 경우도 2007년부터 사생학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만의 경우, 사생학 관련 연구는 대만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부위훈(傅偉勳)교수가 미국의 ‘죽음학(사망학)’ 개념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死亡的尊嚴與生命的尊嚴－從臨終精神醫學到現代生死學－》(1993년)이란 저서에서, 죽음학을 철학·종교학, 심리학, 문화인류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신의학·정신치료 등 의학적 관점에서 학제적으로 접근한 결과, 과학까지 연관한 학제적 융합이란 관점에서 죽음 문제에 대해 접근하여 죽음학 연구의 현대적 의의를 도출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죽음학’ 연구 성과를 진일보시켰을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불

교적 사생관을 접목시켜 '生' 과 '死' 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죽음학 대신 '생사학 (Life-and-Death Studies)' 이란 용어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사생학이 대만에서는 생사학이란 용어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가 토대가 되어 현재 대만의 각 대학교에 생사학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되게 되었다. 남화대학 (南華大學) 생사학연구소 (<http://www.lifeanddeath.net/index.php>) 도 정기적으로 관련 단행본 《生死學研究》(2010년 현재 10권) 시리즈와 학회지 《生死學通迅》(2010년 현재 13권) 을 발간하면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영남대학 (嶺南大學) 철학계에서도 사생학 (http://www.ln.edu.hk/philoso/life_death) 을 개설하여 다루고 있다. 그 밖에 필리핀과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1990년대부터 죽음교육과 함께 사생학 연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사생학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양의 사망학과 일본의 사생학을 받아들여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을지대학교에 장례지도학과가 설치되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생사의례전공이 개설되었으며, 2001년에는 대전보건대학에 장례지도과가 인가되었다. 그 밖에 2004년에는 서라벌대학에 장례서비스경영과 (<http://fun.sorabol.ac.kr/>) 등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들 설치 학과와 전공은 교과내용이 장례와 불교 의례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생학 연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2001년 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죽음과 문화' 란 학술발표회를 가져 2002년에는 이들 논문을 모아 《죽음과 문화》 란 학술지를 발간하여 죽음 문제에 대해 연구소 단위에서 인문학적 관점의 죽음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동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생명문화연구팀에서는 2002년 "한국인의 죽음관과 생명윤리, 생명관과 배아복제윤리" 등을 주제로 죽음과 생명윤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 바 있다. 2004년에는 한림대 오진탁 교수가 '생사학 연구소' (<http://www.huspc.or.kr>) 를 설립하여 철학적 관점에서 자살예방과 죽음교육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는 서양의 죽음학 및 일본 사생학의 연구 방법과 내용을 수용하고는 있지만, 한국적 문화전통과 한국인의 사생관에 맞는 연구 대상이나 방법을 탐구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문학적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 사생학과 생명윤리의 정의나 경계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학회로서 ‘한국죽음학회’(<http://www.kathana.or.kr/>)가 창설되었으나 죽음 현상에 대한 생물학적·의학적인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학제적이며 실천적인 융합 사생학 연구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볼 수 있다.

3. 사생관과 사생학

타나톨로지(Thanatology)는 타나토스(죽음)의 로고스(학문)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death studies, death education 등으로 번역되며, 한국어로 직역하면 死學, 死亡學, 죽음학으로 바꿀 수 있지만 아직 그 연구 영역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河野와 平山에 따르면 ‘생사학’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의료, 복지, 심리, 교육 등의 휴먼 케어 전문직에 의한 간호나 도움을 중심으로 ‘삶(生)’에 중점을 두고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인데 비해, ‘사생학’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철학이나 종교학의 관점에서 ‘죽음(死)’에 중점을 두고 현재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법도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생사학’으로 번역하든 ‘사생학’으로 이해하든 논쟁의 핵심에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이란 속성과 ‘시간’과 ‘공간’이란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기, 정체를 거쳐 사멸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즉, ‘生者必滅’의 유한 생명체인 것이다. 따라서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 피할 수도 없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기실 자신의 죽음은 체험할 수 없기에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은 타인의 죽음뿐인 것이다.

장켈레미치(1978)는 죽음을 인칭별로 분류하여 나의 죽음을 1인칭 죽음, 가족 같은 친밀한 사람의 죽음을 2인칭 죽음, 타인의 죽음을 3인칭 죽음으로 나누었다. 이 개념에 따르면 1인칭의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주관적 영역이기에 스스로 죽음에 대해 불안이나 공포, 혐오라는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들이

거나 사후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2 인칭의 죽음은 자신이 아니라는 의미에서는 타인이지만 자신과 너무 밀접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의 죽음으로 남이 될 수 없고 대상화조차 어렵기 때문에 상실에 대한 충격으로 괴로워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3 인칭의 죽음은 자신 외에 객관적으로 대상화되어 있는 자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죽음,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 타인의 죽음인 것이다. 이와 같은 3 인칭의 죽음은 파고들면 시체이고 따라서 해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 둘로 헤아리는 물건이기도 하다. 우리들이 죽음을 인식의 대상으로서 취급하려고 할 때, 죽음은 3 인칭화되어 있는 것이다. 3 인칭으로서의 죽음이란 것에 의해서 만이 죽음은 지식이 되고 또한 정보가 되며 우리들에게 공유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생관이란 3 인칭의 죽음을 통해 지식화되고 정보화된 죽음을 통해 형성된 보편적 관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관념은 역사와 전통, 문화, 민족성 등과 함께 종교적 차이로 인해 그 형성과 전개 양상은 차이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인의 사생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기독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조물주인 신에 의해 창조된 영생의 피조물이었지만 신에 순종하지 않고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신이 내린 형벌로 간주되며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에 지나지 않고 부활, 영생한다는 사생관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영혼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죽음은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 즉, 재림과 심판을 통해 영생의 사후 세계(천국)로 나아가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고 수용하려는 관념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동양인의 사생관은 유가, 유교, 도가, 도교, 불교 등의 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서양보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가에서의 사생관은 공자가 “삶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論語》先進編)라고 제자인 季路에게 답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현상 즉 天命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는 사람이지만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자로 대표되는 유가

의 사생관은 귀신보다는 사람을, 죽음보다는 삶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삶을 통하여 죽음에 답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⁰ 또한 유교는 죽음을 禮로 해석하려 하였기 때문에 실천적 삶을 중시하는 도덕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 사생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老莊思想으로 대표되는 도가는 죽음을 道로 해석하려 하였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사생관이라 할 수 있는데 반해, 도교는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보았기 때문에 長生長生の 신선을 추구하려는 세속적, 대중적 사생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노자의 '攝生을 잘하는 자'와 장자의 '至人' 등의 생사를 초월하는 신비한 형상은 정신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신화적 비유이지만, 향후 도교에서는 이를 육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각종 불로장생의 방술을 전력으로 모색하였기 때문에, 노자와 장자가 수립한 수준 높은 도가의 생사관은 현실적 욕망을 갈구하는 조급한 도교의 생사관으로 굴절되었다¹¹고 할 수 있다.

불교는 깨달은 자인 부처가 말한 가르침 혹은 스스로 해탈하기 위한 가르침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神에의 귀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세관을 가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생사에 관한 부다의 가르침은 불멸하는 영혼이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는 견해는 常見이고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견해는 斷見이기에 모순된 두 견해를 버리고 中道인 緣起說을 바탕으로 한 사생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통해 이어지기 때문에 생과 사는 하나라는 '生死一如'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래 죽음에 관한 사생관은 종교적 사상에 바탕을 둔 인문학적 영역의 관점에서 취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양의 경우 기독교의 부활과 천국이라는 사생관이 저변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보다 유연한 사고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반면, 동양의 경우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영향으로 죽음보다 현세적 삶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철학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서양의 경우,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문화적, 정신적 기층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학(Thanatology)' 이 '죽음준비교육(death studies, death education)'이란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었던 데 비해, 동양의 경우 죽음과 더불어 삶을 중시하는 생명사상사적 흐름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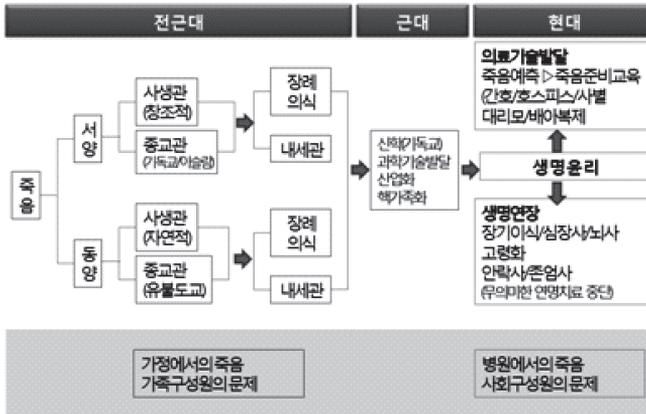
'Thanatology' 를 '생사학' 이나 '사생학' 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前近代 시대에서의 죽음은 신과 자연의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관념 때문에 인간이 판단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의학과 과학적 진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질병의 진단과 더불어 치료가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점차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고, 3인칭 타자인 의사에 의해 죽음이 豫斷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점차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의 죽음은 가족구성원의 문제로부터 사회구성원의 문제로 이동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에 동반되는 간호와 호스피스 문제뿐만 아니라 사별의 슬픔에 직면한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케어의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1960년대부터 서구 사회에서는 호스피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전근대시기의 동·서양의 사생관과 내세관의 차이는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과 동아시아 국가의 서구 문물의 수용이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동양의 사생관에 있어서도 기독교적 사상이 점차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근대를 거치면서 산업화와 핵가족화란 사회적 현상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기독교적 가치관과 윤리관,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죽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타자적 관점에서의 죽음 경험을 직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3인칭 타자의 죽음에 대한 해석과 관점은 개인 생명과 죽음에 대한 가치 판단과 의지 결정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고령화와 생명 연장에 따른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장기이식 결정의 선행 조건으로서의 심장사, 뇌사 등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생명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대리모라든지 배아복제 등의 문제로도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사생학은 임상사생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생학 탄생의 근저에는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인 인문학문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검



[그림 1] 동·서양 사생학 전개의 비교 지형도¹³

또한 동·서양 사생학의 비교 지형도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연구 영역

죽음에 관한 연구는 생명과학, 의과학적인 탐구의 토대 위에서 문화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종교학 등 다양한 관점의 탐구를 융합하는 새로운 탐구 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생학의 연구영역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鳥薊에 따르면, “사생학이 탐구하고자 하는 영역은 '죽어가는 과정과 그 간호', '상실과 상(喪)의 일', '장송과 위령. 추도', '죽은 자(死者)와 함께 있는 것의 문화', '사생관의 역사와 비교' 등은 분명하게 그 범위에 포함된다. 게다가 생명윤리 문제의 상당한 부분은 생사학과 서로 겹친다. 존엄사나 뇌사의 정의, 자살에 관련된 여러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생식·중절·출산에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 등도 사생관과 관련이 깊다”¹⁵ 고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죽음학(Thanatology)이 오늘날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의료 권력의 간여와 비판에서 출발되었지만,

서양의 경우 호스피스나 죽음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반해, 동양의 경우는 생명과 생명윤리를 포함하는 사생학 혹은 生死學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서양의 기독교적인 문화전통과 신학적 관점만 강조되고, 후자의 경우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동양적 관점의 생명관만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진정한 죽음에 대한 통찰이 결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종교적,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관념 속의 죽음과 생물학적, 의학적이며 현상적이고 실제적인 죽음에 대한 상호 이해의 간격을 좁힐 수 없다면 죽음의 정의는 공허하게 된다.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생물학적, 의학적 영역이 관여할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죽음을 법률사전에서는 생명의 정지, 즉 출혈 순환의 전면적인 정지 및 호흡, 맥박과 같은 동물적인 생존 기능의 정지 등 의사에 의해 판정할 할 수 있는 생명의 종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판정은 크게 심장정지설, 뇌사설, 세포사설로 나뉜다고 한다.¹⁶ 하지만 이 역시 쉬운 것은 아니다.

우선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생물과 구별하여 볼 것인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자연과학의 관점이고, 후자는 인문학적 관점이다. 생물학적으로 볼 경우에도 단세포 죽음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다세포 죽음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세포의 경우 일부 조직이나 기관, 기관계의 상실을 죽음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의학적 영역에서도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동양의학이나 한의학의 관점에서 죽음을 정의할 것에 의해 다르다. 즉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을 자연과 연결시키고 있고 자연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양면에서 보기 때문에 인간과 하늘, 땅은 언제나 기운이 교류하고 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은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죽음이 없으면 생도 없는 것이다. 죽더라도 생명 전체는 증가나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죽음은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을 개인의 죽음이라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¹⁷ 서양의학의 경우에는 뇌사를 죽음으로 볼 것인지, 심장의 정지나 호흡의 정지 등을 죽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

다면 안락사나 존엄사¹⁸, 뇌사, 장기기증, 낙태, 대리모, 배아복제 등의 생명윤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설령, 수많은 논의를 거쳐 죽음에 대한 자연과학적 정의가 내려지고 판단 기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죽음을 앞둔 사람과 가족, 사별가족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배려와 고통완화, 치료 등에 대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를 통해 죽음의 수용과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접근법의 제시와 더불어 개인이 속해 있는 지역이나 민족의 전통·문화·역사 등에 관한 정보의 교육이나 제공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생학은 죽음 준비교육과 호스피스를 기반으로 하는 죽음학과 생명윤리와 자살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관과 국가나 민족의 사생관에 입각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과학적 입장에서의 죽음에 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죽음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근대의 도구적 이성에서 비롯된 병리현상과 과학 환원주의의 비인간화 경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함과 동시에 온전한 사생관을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즉 죽음 현상 문제를, 학제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죽음과 삶 그리고 생명 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의 총체적인 통찰과 인문학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보편학으로서의 ‘사생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후마니타스’의 의미를 ‘인류애’와 ‘윤리적·실천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인간다움(인간성)’이나 ‘인문학’이라 정의할 때, 호모 후마니타스는 ‘인문학적 인간’ 혹은 ‘인간다운 인간’으로 함축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적 사생학인 ‘호모후마니타스 사생학’의 개념을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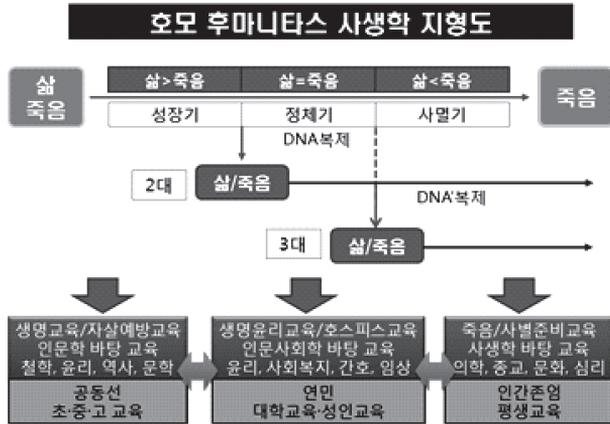
그런데, 이렇게 제시한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을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고 교육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삶과 죽음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각각 별개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과 사가 하나라는 생사일여의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양자는 동일하며 반복되는 순환과정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가 생물의 개체적, 개별적 관점이라면, 후자는 개체군, 전체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



[그림 2]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의 연구 영역 개념도

라 할 수 있다. 모든 생물은 성장기와 정체를 거쳐 사멸기로 이행한다. 이것이 개체적 관점에서의 삶과 죽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체군이나 種의 관점에서 본다면 삶과 죽음은 함께 태어나고 성장기를 거쳐 정체에 이르면 자신의 DNA를 복제하여 種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관점을 빌려 설명하자면 “생물은 특정한 유전물질인 세포라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면서 물질대사를 통해 성장하며, 주변 환경에 대해 반응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자손을 생산한다.”¹⁹ 라고 할 수 있다. 즉, 생물은 항상성과 동종의 DNA 증식을 통해 자신의 종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種의 유지를 위한 생명적 순환 활동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생물학이나 인류학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2차적 도구 사용과 불의 사용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양자 간의 차이는 이 외에도 모체로부터 생존을 위해 습득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스스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개발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에 대한 교육을 성장기와 정체기, 사멸기 전체를 통해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생의 교육에 있어서는 철학, 윤리, 역사, 문화 등의



[그림 3]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교육 관련 지형도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생명교육과 자살예방 교육을, 정체기인 대학생과 성인에 대해서는 윤리, 사회복지, 간호, 임상 등의 인문사회학을 바탕으로 하는 생명윤리교육과 호스피스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사멸기를 앞둔 노년층에게는 의학, 종교, 문화, 심리 등의 관련 학문을 바탕으로 죽음과 사별준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만 이런 교육을 단절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 이 추구하고 있는 공동의 선, 연민, 인간 존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 연관성을 가지며 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의 교육 관련 지형도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실천학으로서의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

이상과 같은 이론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이 장에서는 한국적인 사생학 즉 실천학으로서의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 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조사²⁰한 것을 언급하면서 현대 한국의 젊은이들이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 의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²¹과 호스피스에 대해 어떠한 인식²²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²³

우선 부산·경남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한국형 사생학인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 이 대학교육에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대학생의 죽음 체험에 대한 인식의 경우, 대부분(75.2%)이 가족 및 주변인들의 죽음을 체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금후의 죽음을 맞이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54.7%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고, 예상 수명의 경우는 평균 83.14 살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주로 TV나 인터넷게임, 신문, 책, 만화 등의 순으로 죽음을 접하고 있고, 인터넷게임의 경우 남학생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금후의 죽음 교육을 위한 매체의 유용성을 생각할 때에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남아 있는 여생을 위해 죽음 준비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회답하고 있고, 성인이 이후에 교육을 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심리학적 측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회답이 많이 나타났고, 성별에 의한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죽음 준비교육은 주로 전문가를 통한 강의나 토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고 유서나 장기기증과 같은 직접적인 참가,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교육, 역할극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수강신청 및 단위 이수 의 거부감과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금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에서의 죽음교육 형태는 전공교육 과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특강이나 강연회 등의 단발성 교육을 선호한다든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양교육과목부터 진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죽음을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유서나 묘비명을 작성해 보는 것은 삶의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하는 것으로 죽음으로 모든 번뇌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고

에 대비해서 에프트케어(aftercare)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 아이에게는 죽음에 대해 언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죽음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의 분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죽음에 대해 더 두려워하고 있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남학생들이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죽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죽음 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후 사생학 또는 죽음 준비교육에 대한 대학 교과과정의 활용은 고무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대생들의 낮은 인지도와 무관심은 죽음과 호스피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금후의 호스피스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 교과과정을 통해 대학생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대학생들은 호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제도의 활성화,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호스피스의 직업화,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과반수 정도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본인의 활용 여부, 부모에 대한 활용 여부, 자원봉사의 참여 여부, 호스피스 교육 참가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과반수 정도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따라서 호스피스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적극적 참가로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호스피스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녀학생 간의 차이를 조사해본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호스피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호스피스 교육에의 참가 의사도 높았다. 이것은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호스피스 수용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후 호스피스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오피인인 리더로서의 여학생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전공을 보다 상세하게 인문계, 상경계, 이공계, 예체능계, 의학계로 나누어 전공별 호스피스에 대한 의견차를 살펴보았다. 전공별 학생들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의학계 학생들이 다른 전공학생들에 비해 호스피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공계학생들이 가장 낮은 인식과 부정적인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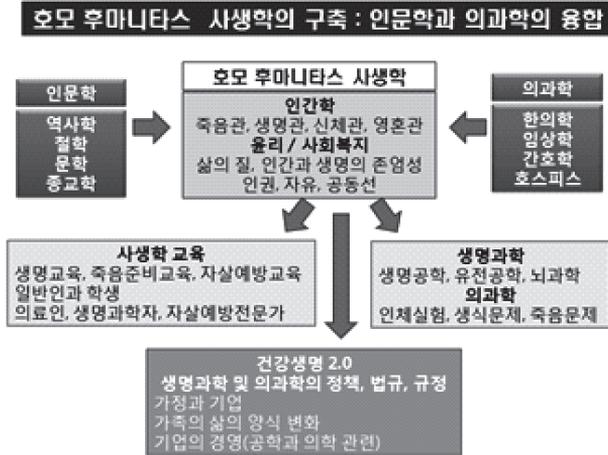
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할 때에 전공별로 다른 방법의 교육 참가 유도, 동기 부여, 교수법의 접근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²⁴이라고 할 수 있다.

6. 나오기

죽음은 생명과 함께 탄생한다. 죽음이 없는 생명체에게는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을 직시해야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태어난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죽음과 삶의 이분법적 사고로 받아들이고 교육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죽음과 삶을 이항적 대립구도로 상정해 온 기존의 사생관에서는 죽음은 회피 또는 금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모든 가치관들이 삶의 문제에만 편중되어온 게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의학기술에 따른 생명연장, 수명의 증가는 노인에게 죽음을 관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학문영역으로서의 Thanatology 에 대한 연구는 기껏 30여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신생학문이라고 한다. 한국사회도 죽음이나 생명윤리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사생학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화로서의 사생관, 장례의식으로서의 죽음, 철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윤리와 자살연구, 죽음교육, 의학적 관점에서의 생명윤리 연구, 간호학과 사회복지학 관점에서의 호스피스 연구 등 사생학 관련 부분적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지만, 모두 분절적이며 폐쇄적이다. 인문사회학과 의학, 자연과학의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즉, '호모 후마니타스'의 정신에 입각한 사생학 연구를 통해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담론에서 실천적,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면서, 의학과 생명과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문학의 자생적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은 죽음만의 학문이 아니라 생과 죽음의 학문이다. 그러므로 영어로 표현하자면 'Well-be-dying'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을 통해 삶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삶이 죽음을 물리칠 수 없지



[그림 4]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 연구 개념도

만, 죽음은 삶의 가치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죽음과 삶 이분법 때문에 죽음은 회피 또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 삶과 생명에만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본질적 이분법을 극복하고 죽음의 의미를 통찰함으로써 죽음과 삶(생명)의 의미를 온전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이라 할 수 있다. 인문학과 의과학의 지적융합담론으로서의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을 신생학문으로서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註]

- 1 이 사건은 2008년 연세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인해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김할머니’에 대해 2009년 6월 23일 대법원에서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는 생전의 의사를 존중하여 호흡기를 제거한 것을 일컫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존엄사’와 ‘안락사’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진의 예상과는 달리 ‘김할머니’는 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201일이

- 나 생존하여 2010년 1월 10일에 숨을 거두었다.
- 2 시마조노 스스무. 다케우치 세이치 엮음, 정효운 옮김, 2010, 『사생학이란 무엇인가』, 한울, 6쪽.
 - 3 본 사업단은 '호모 후마니타스의 사생학' 이란 과제로 한국연구재단 2009년도 학제간 융합연구사업을 수행한 바 있고, 본 논문도 이들 결과물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또 이 내용은 2010년 11월 20일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동경대학 문학부 GLOBAL COE 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아시아의 사생학' - 일. 한국제연구회의 - 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4 'Humanities' 란 의미는 '인간다움 (인간성)' 이나 '인문학' 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Homo Humanities 라는 것은 '인문학적인 인간' 또는 '인간다운 인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여기서 'Humanity' 라든지 'Humanism' 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Humanities' 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근대 이후 인문과학적인 언어들에 다양한 이유에서 그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고 왜곡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어 자체의 분위기를 살려 'Humanities' 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dignity) 과 연민(sympathy) 이란 의미만이 아니라 공동의 선(common good) 이란 코드까지도 추출하기 위해 'Humanities' 라는 용어를 채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인간' 으로서의 죽음을 사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 자체가 인문학 본래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5 이상목 외, 2005,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석당학술총서 11 『한국인의 죽음관과 생명윤리』, 세종출판사. 이상목 외, 2005,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석당학술총서 12 『한국인의 생명관과 배아복제윤리』, 세종출판사.
 - 6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죽음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적인 측면 즉, 생사관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구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로서는 유초아 외, 2008, 『한국인의 생사관』, 태학사와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원형연구사업단, 『동아시아의 생사관』, 전남대학교출판부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사생학' 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본 연구진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 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진에서 연구된 관련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효운, 2009, 「한국 사생학의 현황과 과제 -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구축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 『동북아문화연구』 21집. 정효운 외, 2010,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1. 정효운 외, 2010, 「부산. 경남

- 지역 대학생들의 ‘호스피스’ 인식에 대한 기초 연구 -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구축을 위하여 - 『동북아문화연구』 22 집 . 박종식 외, 2010, 「사생학 성립 근거에 관한 철학적 탐구」 『대동철학』 50 집 . 김도희, 2010, 「국어 교과서를 활용한 죽음교육」 『국어교육학회』 46 집 .
- 7 河野友信 . 平山正実 편, 2003, 『臨床死生学事典』, 日本評論社 .
 - 8 ジャンケレウィッチ, 1978, 『死』 (仲沢紀雄訳), みすず書房 .
 - 9 芹沢俊介, 2008, 「なぜ人は死に怯えるのだろうか」, 島蘭進 他 『死生学 1 - 死生学とは何か -』,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 162 쪽 .
 - 10 이수진 · 양희석, 2009, 「유가 생사관의 형성과 전개」 『동아시아의 생사관』 앞의 책, 57 쪽 .
 - 11 양희석, 2009, 「도가 생사관의 형성과 전개」 『동아시아의 생사관』 앞의 책, 117 쪽 .
 - 12 이종표, 2002, 「불교의 생사관」 『동아시아의 생사관』 앞의 책, 64 쪽 .
 - 13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그림 1, 2, 3 은 정효운, 2009, 「한국 사생학의 현황과 과제 -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구축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 앞의 논문에서 옮겨온 것이다 .
 - 14 박종식 외, 2010, 「사생학 성립 근거에 관한 철학적 탐구」 앞의 논문, 156 쪽 .
 - 15 島蘭進, 2008, 「死生学とは何か」 『死生学 1』, 앞의 책, 20 쪽 .
 - 16 박종식 외, 2010, 앞의 논문, 158 쪽 .
 - 17 김인락, 2002, 「동양의학의 생사론 연구」 『죽음과 문화 (인문연구논집 7)』, 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43 쪽 .
 - 18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자는 3 인칭에서 보는 관점이고 후자는 1 인칭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19 정경태, 2009, 「세포와 죽음」 『융합연구로서의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동북아시아 석학초청 공동 국제학술대회 - 삶 . 죽음 . 문학 . 문화 - 발표요지, 동의대학교 2009. 12. 9.
 - 20 조사 대상자 800 명 가운데 성별을 보면, 회신이 없었던 2 명을 제외하고 남학생이 37.3%(N=298), 여학생이 62.7%(N=500) 이며, 전공별에서는 회신이 없었던 10 명을 제외하고 인문계 58.1%(N=461), 이공계 16.1%(N=128), 상경계 8.4%(N=64), 법학계 0.8%(N=6), 예 . 체능계 4.5%(N=36), 의학계 12.0%(N=95) 였다 .
 - 21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죽음의 경험에 의한 인식, 죽음의 접촉 경로, 죽음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 죽음 교육이 필요한 시기와 구체적

인 교육내용, 죽음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 평소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죽음 교육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 22 이번의 조사는 호스피스 제도에 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 호스피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호스피스에의 참가 의사 등 크게 3종류로 작성되었다. 호스피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묻는 항목의 경우 호스피스와 죽음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와 관련이 있는 제도와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의 수용 의사에 대한 적극성을 조사하기 위해 금후의 호스피스 이용 여부 및 봉사 의향, 교육 참가 의사 여부 등의 질문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조사 통계는 SPSS17.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것이다.
- 23 상세한 것은 정효운 외, 2010,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앞의 논문과 정효운 외, 2010,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의 '호스피스' 인식에 대한 기초 연구 - '호모후마니타스사생학' 구축을 위하여 -」 앞의 논문을 참조.
- 24 이들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부산과 경남지역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들 결과를 한국 전체 대학생의 인식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 과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을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금후 호스피스 교육 및 나아가 죽음 준비교육과 '호모 후마니타스 사생학'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